

정시 전형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점

수능이 끝난 뒤, 원서 영역의 시작

0. 시작하면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것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끝나가고 남은 것은 원서뿐입니다. 원서를 얼마나 잘 넘느냐는 내가 수능에서 못 본 과목 혹은 점수를 매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원서 영역입니다. 해당 파일, 문서는 원서 영역에 대해 큰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컨설팅이나 입학 설명회에 간다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제가 2020학년도 입시 때 혼자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공부했던 입시 영역의 내용과 또, 새롭게 정보 수집 및 정리를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표본분석을 하여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수능에서 만점이 아니라면은 누구나 아쉬운 부분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 긴장 등 우리들의 실력 발현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다면, 아쉬웠던 나의 점수를 매꿀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들, 마지막 영역을 잘 치러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캠퍼스에서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시 영역 관련 단어 사전

A. 성적에 대한 용어

1) 성적표

수능 성적표에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 수학, 탐구의 경우에는 백분위와 표준점수, 등급이 적혀있고, 절대평가 과목인 한국사, 영어의 경우에는 등급만 적혀있습니다.

2) 등급

수시에서는 최저 때문에 등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시 영역의 지원에서는 등급보다는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중요합니다.

3) 백분위

100이 가장 높습니다. 만점이 1%의 인원보다 많다면 만점도 백분위가 1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표준점수

내가 평균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백분위보다는 표준점수가 중요합니다. (탐구 제외) 표준점수에 대학교별 과목의 반영비를 합쳐서 대학 점수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5) 원점수

실제 시험에서 받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6) 표준점수합

순수하게 성적표에 적혀있는 국수탐의 표준점수합을 말합니다. 대형 입시기관의 입시설명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수능 끝나고 신문기사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표점합 XXX 이런식으로 발표하듯이 입시설명회 책자를 보면 표준점수 합을 기준으로 배치표를 줍니다. 과목별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입시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년도 수능과 표준점수 합을 비교하면 그해 수능의 난이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통-선택, 수학통합, 교차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7) 평균 백분위 (평백)

실제로 성적표에 나와있는 백분위를 순수하게 더해 과목에 대해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과목별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평균 백분위여도 포지션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8) 누적 백분위 (누백)

누적 백분위는 전교 등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누적 백분위를 발표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백은 추정치입니다. 대표적인 누백으로 GS식 누백이 있는데, 고속성장기에 넣었을 때 나오는 누백입니다. (고속성장은 하단 참고) 해당 누백은 수학이 가중되어 나온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만 누백은 내 등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서 참고하면 좋은 요소입니다.

9) 변환 백분위

탐구의 경우, 선택과목에 따라 유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계산을 하는 법을 수능이 끝난 뒤 발표합니다. 실제 대학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변환 백분위가 사용됩니다.

10) 등급컷

등급컷은 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공통-선택은 기본적으로 공通的을 더 잘 본 선택 집단에 더 많은 1등급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매겨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B. 입시 커뮤니티 등에서의 용어

1) ㅈㅎㅅ, 진학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넣고, 또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볼 수 있어서 입시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모의지원 사이트입니다.

2) 칸수

진학사 모의지원에서 부여하는 합격가능성으로 1~10칸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학사가 가장 표본이 많기 때문에 진학사를 참고한 입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1~3칸은 소신, 4~6칸은 적정, 7~10칸은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절대적 신뢰는 아닙니다.)

3) 고속성장

입시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및 배치표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파파 안달부루스라는 다음카페로 가면 그 분의 자료를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지원 및 컨설팅에서 필수적으로 사야하는 것이 고속성장기와 진학사인데, 고속성장기를 통해 자신의 누백을 확인하고, 작년 입결(입시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입결

입시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입시에 대해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 추정치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80%커트라인까지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합격자를 찾아서 만든 표가 입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보다 오르비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입결을 치고, 최소한 2021, 2020, 2019의 입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해 입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5) 빵꾸

입시에 어느 과에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어느 과에는 사람들이 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커트라인보다 낮은 입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빵꾸라고 하고, 이를 겨냥한 것을 스나이핑이라고 합니다.

C. 전략에 관한 용어

1) 상향

자신의 성적보다 높이 쓰는 것

2) 하향

자신의 성적보다 낮게 쓰는 것

3) 적정

자신의 성적에 맞게 쓰는 것

4) 소신

자신의 성적보다 많이 높이 쓰는 것

5) 스나이핑

혹시 빵꾸나는 과를 겨냥해서 원서를 넣는 것

6) 교차지원

수학을 미적과 기하를 보고, 인문계열의 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가,나,다 군

정시 원서는 가, 나, 다 군 각각 한 장씩 3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이 2~3군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1군에서만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표본

다른 사람의 성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본이 많이 모인 모의지원은 사람들이 많이 해본 모의지원을 말합니다.

9) 모의지원

실제로 지원을 하기 전에 모의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격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지원을 하면 합격확률에 더해 다른 사람의 표본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0) 라인

같은 입결, 비슷한 입결을 가진 대학들을 묶어서 라인이라고 합니다. 예) 서-성-한, 중-경-외-시-미

11) 이월, 이월인원, 수시이월인원

수시에 충분한 인원이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적을 때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을 정시로 모집하는 것을 이월, 이월인원, 수시이월인원이라고 합니다.

12) 추가합격

해당 학과에 지원한 인원이 등록하지 않고 다른 학교 가서 등록해서 자리가 비어서 추가로 합격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합격은 1차, 2차는 보통 홈페이지에서 그 이후의 추합은 전화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 추합률

모집인원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가합격을 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모집인원 30명에 추합률이 300%라면 총 90명이 추합을 하는 것입니다.

2. 생각하면 좋은 점

A. 무엇이 성공적인 원서영역인가

당연히 내 점수가 꼴지인 원서가 가장 좋습니다. 내 성적의 극한으로 대학의 과를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배짱으로 원서를 넣으려면 분석을 많이 해야 합니다.

B. 칸수를 통한 전략

1~3칸은 소신, 4~6칸은 적정, 7~10칸은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적정 내에서 칸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6칸 이상이면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4~5칸은 50% 내외의 합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진학사는 막판까지 좀 봐야 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본들이 더 유입된 이후에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 +1년을 생각 (붙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소신 소신 적정

b) 일반적 지원

소신 적정 안정

적정 적정 적정

낮은 적정 적정 안정

c) 안정적 지원

높은 적정 적정 안정

적정 안정 안정

C. 표본 분석이란

나와 비슷한 나랑 유사한 사람들이 어디를 넣었고, 넣을 예정인지를 분석해서 나의 합격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높은 학교, 의치한일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극상위권은 단순히 칸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D. 참고하면 좋은 자료

1) 오르비에 한강의 기적 컨설턴트님이 쓰시는 글들은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속 성장기는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파파안달부루스)

3) 진학사 모의지원은 필수입니다.

이외의 컨설팅은 전부 선택입니다. 입시설명회도 생각보다 와이드한 설명 위주라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아예 못 잡는 경우 제외) (메가, 대성 등 큰 기관 입시설명회)

E. 논술은 언제 가는 것일까

정시 및 수시 성적으로 논술의 대학보다 잘 가기 어려울 때 보통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 컨설팅, 입시 설명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가는 곳인가

보통 내가 실패하더라도 한 칸 높은 대학 라인을 가고 싶을 때, 스나이핑 등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컨설팅입니다.

입시 설명회는 크게 2~3 라인을 잡고 입시 동향을 듣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예-크게 중경외시이 서성한 건동홍 라인에서 입시 원서를 준비해야겠다.)

3. 어떤 전략으로 정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1) 경쟁자 대비 내 성적의 분포를 비교합니다.

내가 특정 과목을 잘 보고 못 보고가 있는데, 나랑 비슷한 표준 점수합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 내 성적이 어느 과목에서 강점인지, 어느 과목에서 약점인지 판단합니다.

2) 내가 갈 2~3개 대학라인에 속해있는 대학들의 반영비를 전부 확인합니다. 이를 비교해서 내 성적분포가 어느 대학에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합니다.

3) 소수과, 대형과를 모두 고려해서 진학사에 여러번 모의지원을 합니다. 칸수와 등수, 내 경쟁자들의 모의지원학과를 전부 분석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합니다. 또한 진학사에는 순위도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려대 사회교육을 염두해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은 경쟁자의 모의지원입니다.

A) 서울대 사회교육-고려대 사회교육-XX한의대

이렇게 라면 고려대 사회교육 말고 다른 과를 쓸 가능성이 낮습니다. 애초에 전공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학생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염두해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은 경쟁자의 모의지원입니다.

B) 서울대 인문-고려대 경영-XX한의대

고려대 경영이 2순위라면 점수를 맞추어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떨어지면 고려대 경영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서울대 인문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대 인문의 표본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 고려대 경영이 1순위인 경우에는 실제로 올 확률 안 올 확률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4. 원서 지원의 실제

마지막 3번 내용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A. 최근 3개년 대학 합격커트라인 (대학변환점수로)
- B. 작년 수능 통계, 올해 수능 통계
- C. 진학사 모의지원
- D.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추합률

그해 수능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의예과 표준점수 합과 올해 예측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수능의 비교적인 난이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점수와 대학변환점수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커트라인을 찾습니다. 내 목표 대학의 내 점수와 비교합니다. 이를 3개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능이 어렵거나 다음해 수능에 변동이 큰 해는 안정적인 지원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위과로 인식되는 경영, 경제 등 상경과 공학 계열의 커트라인이 동일대학 인문대학이나 비인기과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과 2021년은 안정적인 지원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를 참고해주세요.

진학사 모의지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다른 과에 모의지원 했으나 우리과를 쓸 수도 있는 사람

예시로는

국어 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사회 교육과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걸러내려면 과들의 유사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경영-경제 이렇게 같이 지원을 고민하는 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B)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내가 지원할 과에 등록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되면 추합이 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합격할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5. 올해 입시에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점

-작년에 비해 수학은 빠르게 보아야 합니다. (기하, 미적)
백분위 98~99 인원이 가형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입시와 관련된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할수록 좋습니다. 입시가 크게 변하는 해이기 때문에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꼼꼼히 원서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